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청사항 분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文 禎 娥

2022 年 2 月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청사항 분석

指導教授 梁 彰 容

文 禎 娥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1 年 12 月

文禎娥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22 年 2 月

<국문초록>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분석

文 禎 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彰 容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화행의 유형과 사용빈도를 비교, 분석하여 특성화고의 영어 교과서가 영어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요청화행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교과서마다 요청화행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교수방법들이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기능 향상을 이끄는 영어교재를 위한 화행 분석과 화행 교수방법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학교 영어 수업에서 교과서는 영어과 핵심역량인 의사소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개이며 화행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의사소통능력 중 하나이다. 교과서의 담화 지문들을 분석하는 화행에 관한 연구는 빈번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2015 개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한 화행 연구는 현재까지 심도있게 진행된 바 없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영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에 드러난 요청화행을 분석하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의 전체 대화문에서 요청화행을 발췌해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과 사용빈도를 분석했다. 특성화고 영어

* 본 논문은 202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특성화고가 중등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생의 글로벌 마인드와 실재적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Trosborg(1995)의 요청화행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 별 요청화행 유형의 분포도와 실제 사용빈도 순위를 정리, 분석했다. 연구 결과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요청화행 유형을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교과서의 화행지식 구성의 적절성과 실재성, 더 나아가 바람직한 화행 교수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5종의 교과서 전체 담화 지문에서 요청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47%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과서 내에 요청화행을 학습하기에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영미문화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요청화행은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44.8%)과 Strategy 1. Hints(22.8%) 유형이며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들 또한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27.96%), Strategy 8. Imperatives(21.41%)와 Strategy 1. Hints(16.88%)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5% 미만의 낮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실제 원어민의 요청화행 사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특성화고에서만 배우는 전문 교과인 관광영어와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가 원어민의 전체 요청화행 유형들 중 70%를 차지하는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와 Strategy 1. Hints 유형의 영어 표현을 전 요청화행의 50%이상의 비율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제 원어민의 요청화행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교육목적인 취업과 연계한 영어 교과서가 학생들이 간접적이고 청자 중심의 요청화행을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한 영어권 취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요청을 구사하고 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요청화행과 같은 화행학습이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실재적 요청화행 함양을 위한 교수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교사가 수업 시작 전 교재 분석을 하여 교과서에서 부

족한 유의미 연습 활동을 추가하고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을 포함한 보충 자료들을 준비한다면 학생들의 말하기 역량을 키울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교사가 바람직한 언어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역할 놀이를 통해 제한적인 교실 공간을 벗어나 교실 밖의 실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모든 학습자가 일대 일로 충분한 연습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말하기 수행평가를 할 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평가, 자기평가를 통해 평가기준, 방법, 결과를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5종’의 영어 교과서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전체 영어 교과서를 대표하여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Trosborg(1995)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가 실제 영미 문화권의 요청화행 표본이라고 객관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방법들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류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교과서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화행을 Trosborg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뒤 영어 원어민의 실제 유형별 사용 분포와 비교, 정리하고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요청화행 교수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연구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기법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실제적인 화행지식을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 영어 교재를 보완하고 본 연구의 교수방법의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v
표 목차	vi
그림 목차	vi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방향	3
II. 이론적 배경	4
2.1 화행의 정의와 이론	4
2.2 화행의 양식	7
2.3 요청화행	8
2.3.1 요청화행 정의	8
2.3.2 요청화행 분류	10
2.4 선행연구	19
III. 연구 방법	22
3.1 연구대상	22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4
IV. 연구 결과 및 분석	26
4.1 요청화행의 기재비율	26

4.2 요청화행 유형별 분류	28
4.3 교과서 별 요청화행 분석	32
4.3.1 「영어 I」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3
4.3.2 「진로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4
4.3.3 「실용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6
4.3.4 「관광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8
4.3.5 「비즈니스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42
V. 요청화행을 위한 실제 교수법	44
5.1 요청화행 연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4
5.2 요청화행 교육의 실제 방안	45
5.2.1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교재분석	47
5.2.2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학습환경 및 역할놀이	51
5.2.3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평가	58
VI. 결론 및 제언	65
6.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65
6.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67
 참 고 문 헌	 69
ABSTRACT	73

표 목차

<표1> 요청화행 실현을 위한 Searle(1969)의 적정조건	5
<표2> Gazdar(1981)의 Literal Force Hypothesis	8
<표3> Blum-Kulka(1989)의 요청의 관점	9
<표4>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유형 분류	16
<표5> Trosborg(1995)의 원어민 요청화행 빈도에 따른 순서	18
<표6>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분석범위 및 내용	23
<표7>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별 요청화행 빈도	26
<표8>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총 문장 중 요청화행 비율	27
<표9> Trosborg(1995) 요청화행 유형에 따른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분류	29
<표10>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유형 빈도	30
<표11> 영어 I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3
<표12> 진로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5
<표13> 실용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7
<표14> 관광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39
<표15> 비즈니스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42
<표16>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따른 역할 놀이의 상황	57

그림 목차

<그림1> 기계적 연습 활동	47
<그림2> 기계적 연습 활동	48
<그림3> 유의미 연습 활동	49
<그림4> 유의미 연습 활동	50
<그림5> 동료평가 학습지	60
<그림6> 자기평가 학습지	63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영어는 국제적인 공용어로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간의 주요 의사소통의 매개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영어 교육과정은 9차례에 걸쳐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단순 구조주의 및 청화식 교수법, 문형학습을 강조했던 1-5차 교육과정과 달리 1994년을 기점으로 한 6-7차 교육과정부터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회언어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언어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교수하기 위한 의사소통역량 함양이 강조되어 언어학습 자료로서의 화행 수행 발화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역시 학습자의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에 맞는 핵심 성취기준 선별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어휘와 형식을 학교급별로 구분 제시하여 학생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교실 수업 위주로 영어를 학습해야만 하는 한국의 EFL¹⁾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어 사용 기회를 풍부히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학교 영어 수업에서 교과서는 영어과 핵심역량인 의사소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이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실제 영미권 문화의 화용적 기능 즉 의사소통 중심의 내용을 골고루 포함한다면 EFL 환경에서 학습 자료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을 “일반적인 언어 사용자가 이질적인 언어공동체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능력(Hymes, 1972: 282)”이라고 설명하였으며 Lakoff(1972)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공손한 표현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잘못된 표현 또는 방식으로 사용하기에 EFL 학습자는 화행의 다양

¹⁾ EFL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의 약어이며, 실제 영어 회화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의미한다(Iwai, 2011).

한 뉘앙스를 이해, 습득하는 도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Lakoff, 1972: 910-911). Vellenga(2004)는 “EFL 학습환경에서는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며 거의 유일하게 사용하는 언어학습 도구로서 화용적 교재는 명확한 화용언어와 상황적 맥락 정보, 다양한 형태, 깊이 있는 문화 정보 등의 지식을 제공하여 화용 인식을 기르는 활동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Vellenga, 2004: 1-2). 따라서 학습자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교과서가 실제 영미 문화권의 사례들을 토대로 화용지식을 효과적으로 수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중요하다(박정숙, 2014). 현재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의 담화 지문들을 화행이론에 근거해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영어 교과서가 영미 문화권 원어민의 실제 화행 수행을 잘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은 향후 바람직한 화행 교수 자료 및 교수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특성화고의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졸 청년의 다양한 성장 경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추진함으로써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인드, 의사소통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차별화된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특성화고에서 학생의 취업과 연계한 영어 회화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위주의 대화 지문이 많이 포함된 전문 교과군 영어 교과서를 채택하여 교육한다(윤소영,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화용적 능력이 보다 필수적인 특성화고 학생의 영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자 한다.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 의사소통역량 습득을 위해 요청, 감사, 칭찬, 불평, 거절, 사과 등의 다양한 화행(speech act)을 포함한다. Wierzbicka(1987)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호작용의 세상을 지각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화행 수행 동사라고 주장한다. Wierzbicka(1987)는 의사소통의 핵심인 화행 수행동사를 총 97개의 의미 그룹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였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요청화행인 ‘Ask 그룹’을 2개로 세분화하였으며 *request, beg, implore, intercede, urge* 등의 가장 많은 동사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요청화행(request)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구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담화자의 영어 사용 실제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준거라 판단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요청화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행

이며 잘못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의 실패를 빈번히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요청화행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반영된 특성화고 교과서가 요청화행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현장 중심 의사소통역량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총 5종의 영어 교과서 대화문에서 드러난 요청화행 유형을 실제 영어권 원어민의 요청 화행 사용과 비교하여 EFL 학습 교과서로서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요청화행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 교수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여 영어 교과서가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요청화행 유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 함양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화행 교수방법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화행이론 및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 목적에 알맞은 화행중심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와 교수방안 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요청화행 발화는 Trosborg(1995)가 제시한 요청 화행 유형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영어권 원어민의 요청 화행 사용과 비교하여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각 5종)에 사용되고 있는 요청 화행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해당 교과서는 EFL 학습 교과서로 효용성이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위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EFL 학습 자료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화행적 능력 습득을 위한 구체적인 화행 교수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화행이론, 화행의 양식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요청화행의 의미와 유형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2.1 화행의 정의와 이론

화행이란 어떤 집단에 속한 한 구성원이 발화 시에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특정 기능 또는 행위로 집단 내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된다. Austin(1962)은 사후에 출판된 그의 저서 *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화행(speech act)이론을 완벽하게 정립하였다. Austin은 언어행위를 발화행위(locutionary act)와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의 세 가지의 하위 행위로 분류하였으며 화자가 어떤 발화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언어 행위가 수반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발화행위란 언어를 구사하는 발화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며 발화수반행위란 발화를 통해 화자가 의도하는 약속, 명령, 질문, 진술, 강요 등의 발화의 핵심 행위를 의미한다. 발화효과행위는 청자가 발화수반행위를 통해 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듣고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ustin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언어행위에서 발화수반행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화자의 발화에 담긴 수행력(performative force)을 통해 청자가 실제로 의도한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stin은 발화수행력을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판정발화(verdictive)는 배심원 혹은 심판이 판정을 내릴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기준과 확신에 의해 가치를 평가, 판단, 칭찬하는 것이다. 둘째, 행사발화(exercitives)란 발화자의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시, 경고, 지명 등이 있다. 셋째, 언약발화(commisives)란 약속을 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책임을 다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약속, 맹세, 확약 등을 포함한다. 넷째, 형태발화

(behaviors)는 화자의 태도나 사회적 행동, 개인적 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과, 축복, 축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평서발화(expositives)란 화자가 대화에서 자신의 발화를 명확히 서술하는 것으로 부인, 강조, 수용 등이 속한다.

Searle(1969)은 Austin의 발화수반력을 상당 부분 지지하면서도 불분명한 분류 기준을 비판하며 발화수반행위를 재정립하였다. Searle의 발화수반행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해보면 화자가 어떤 명제의 진실에 대해 단언하는 표본발화(representatives),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지시하는 지시발화(directives), 화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기로 약속하는 언약발화(commisives), 명제 내용으로 상술된 사건에 대해 화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발화(expressives), 어떤 제도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고 복잡한 언어 외적인 제도에 의존하는 선언발화(declarations)로 나눌 수 있다.

Searle(1969)은 성공적인 언어 행위를 위한 Austin의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적절 조건을 제시하였다. Searle의 적정 조건을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요청화행 실현을 위한 Searle의 적정조건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Future act A of H
Preparatory Condition	(a) H is able to do A. S believes H is able to do A. (b) It is not obvious to both S and H that H will do A in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f this own accord.
Sincerity Condition	S wants H to do A.
Essential Condition	Counts as an attempt to get H to A.

[S: Speaker H: Hearer]

(Searle, 1969: 74)

<표1>에서 요청화행의 명제내용조건(prepositional content condition)은 청자가 수행하게 될 미래행위 A를 말한다. 예비조건(preparatory condition)은 청자가 A라

는 행위를 할 수 있고 화자 또한 청자가 A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때 화자와 청자 모두는 청자가 A라는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 성실조건(sincerity condition)은 화자는 청자가 A의 행위를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필수조건(essential condition)은 화자가 의도하는 발화행위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ustin은 발화수반력의 중요성과 이를 다섯가지로 최초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Searle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황과 맥락에 맞는 발화조건들을 제시한 점에서 화행이론의 실제적 발전을 도모했다.

발화행위와 문장 자체를 강조한 기존의 화행 연구와 달리 Grice(1975)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화행 이론을 전개하였다. Grice는 대화란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협동적인 노력임을 강조했다. 대화 교류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모두는 대화의 원리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대화 원리를 협력원리(cooperative principle)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대화 참여자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대화자들이 지켜야하는 대화의 네 가지 격률(maxims of conversation)로 양(quantity), 질(quality), 관련성(relevance or relation), 그리고 방법(manner)의 개념을 제시했다. 양의 격률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발화를 하라는 전제이다. 질의 격률은 화자가 참인 것만을 말해야 하며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발화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관련성의 격률은 대화의 내용과 관계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며 방법의 격률은 모호성과 중의성을 피하여 간결하게 말할 것과 논리정연하게 발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화 활동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일반화한 격률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지켜야 할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위의 격률을 위배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화자가 간결하게 말하기인 방법의 격률을 위배한다면 ‘간접화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ustin에서 시작된 화행이론은 Searle과 Grice를 거쳐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화행이론 중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화행의 양식이다. 한 언어권의 일상적인 대화 상황 속에서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 언어에 대한 다양한 화행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화행의 양식과 간접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2 화행의 양식

화자는 청자가 행하고자 하는 발화의 의도를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인 방법으로 드러낸다. 화자의 발화 의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청자가 이를 성공적으로 파악한다면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Levinson(1983)은 화행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직접화행은 화자의 발화행위를 수행동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직접화행은 명제 내용과 표현방식이 일치한다. 반면, 간접화행은 직접화행처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닌 완만하게 돌려서 말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문장의 구조와 전달하고자 하는 화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종수(1990)는 발화가 발화수반행위로 나타나는 데에 직접화행과 간접화행, 반간접화행/반직접화행의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직접화행은 명제내용과 표현방식이 일치하는 것이다. 화자의 발화 속에 명백한 발화 의도가 표지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Be quiet!'의 발화는 명령문을 통해 '조용히 해!'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다. 간접화행은 내용이 명제와 일치하면서 실제 의미에는 일치하지 않는 화행을 가리킨다. 즉 문법적 범주 내에서 발화 수반행위의 해석이 다른 문법적 범주의 해석으로 수행되는 화행이다. 예를 들어 'Do you have some change?'는 '잔돈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인 동시에 발화수반행위의 또 다른 맥락으로 'Can you give me money?'라는 요구를 포함한다. 이것은 간접화행의 원리이며 화자의 발화 의미와 문자의 의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반간접/반직접 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 사이에 있는 화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사나 화법동사와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며 완전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는 것도 아닌 발화를 의미한다. 이종수는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반간접/반직접화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Gazdar(1981)가 제시한 직접 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 이론은 <표2>와 같다.

<표2> Literal Force Hypothesis

Sentence type	Illocutionary act
Declarative	Stating
Interrogative	Inquiring
Imperative	Commanding

위 <표2>에서 문장의 유형으로 평서문(declarative), 의문문(interrogative), 명령문(imperative)이 각각 진술하기(stating), 질문하기(inquiring), 명령하기(commanding)와 같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면 직접화행이다. <표2>에서 발화하는 문장 유형과 그 기능인 발화수반행위가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직접화행이다. 반면 발화나 문장이 <표2>에 매치되어있는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간접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언어권에서 대화자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간접화행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화가 발생하는 상황적,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간접화행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이에 영어에서 간접화행이 자주 일어나는 화행 중 하나인 요청화행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3 요청화행의 정의와 유형

2.3.1 요청화행 정의

요청화행은 학자마다 상이한 정의를 내리지만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발화행위라 정리할 수 있다.

Searle(1969)은 요청을 간접화행으로 간주하여 정리했다. 그는 요청 발화에 예비조건(preparatory), 성실조건(sincerity), 명제내용조건(prepositional content), 필수조건(essential)인 네 가지 적절성 조건을 제시했다. 예비조건은 대화 참여자들이 요청 상황에서 사용하는 모든 조건을 나타낸다. 성실조건은 요청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

의 심리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명제내용조건이란 화자가 요청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요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을 의미한다. 필수조건은 요청행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다.

Brown & Levinson(1987)은 요청을 체면위협행위(Face Threatening Acts: FTA)로 설명했다. 화자는 타인에게 방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을 위협하는 언어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바라는 요청에 대해 청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체면(positive face)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즉 요청화행을 수행하는 데에 간접화행을 알맞게 활용하여 공손함(politeness)을 나타내어 원만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끌 필요가 있다.

Blum-Kulka(1987)는 화자가 요청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에 따라 해당 발화가 청자에게 주는 영향이 다름을 전제하여 요청 관점의 유형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Blum-Kulka는 요청화행에서 화자 또는 청자의 입장의 중요도에 따라 청자가 가지는 부담의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요청의 관점을 화자중심, 청자중심, 포괄적, 비인칭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 <표3>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3> 요청의 관점

관점의 분류	예시
화자중심(Speaker-oriented)	Can I have it?
청자중심(Hearer-oriented)	Can you do it?
포괄적(Inclusive)	Can we start cleaning now?
비인칭(Impersonal)	It needs to be cleaned.

(Blum-Kulka, 1987: 203)

<표3>에 따르면 화자중심 관점은 요청의 주체인 'I'를 강조하므로 청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청자중심 관점은 청자인 'you'를 드러내어 청자가 요청 수행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포괄적 관점은 'we'를 사용하며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인칭 관점은 중립적 주체인 'people, they, one'을 활용하거나 또는 수동태를 사용한다.

요청은 영어 의사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행이며 각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영어 의사소통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요청화행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청화행의 유형을 대표적인 학자에 따라 살펴보고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3.2 요청화행 유형

(1) Searle의 요청화행

Searle(1979)은 요청화행을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특징과 대표적인 예시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 1) 능력형(Sentences concerning H's ability to perform A): 청자가 화자의 요청행위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요청화행의 유형이다.
 - a. Can you reach the salt?
 - b. Could you be a little more quiet?
- 2) 소망형(Sentences concerning S's wish or want that H will do A): 청자가 수행 또는 반응하고자 하는 행위를 화자가 희망과 필요, 소망 표현을 이용해 요청하는 유형이다.
 - a. I would like you to go now.
 - b. I want you to do this for me.
- 3) 행동형(Sentences concerning H's doing A): 청자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요청의 의미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 a. Officers will henceforth wear ties at dinner, it's the dress code.
 - b. Would you kindly get off my foot?
- 4) 의지형(Sentences concerning H's desire or willingness to do A): 청자 개인의 지나 욕구와 같은 자발성의 유무를 물음으로써 해당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

는 유형이다.

- a. Do you want to hand me that hammer?
- b. Would you mind not making so much noise?

5) 이유형(Sentences concerning reasons for doing A): 요청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유형이다.

- a. You ought to be more polite to your mother, she raised you.
- b. You had better go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6) 지시형(Sentences embedding a directive illocutionary verb): 직접적인 요청 의미를 보여주는 *ask, require, demand, name* 등의 지시적 동사를 활용해 표현하는 유형이다.

- a. Might I ask you to take off your hat?
- b.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make less noise.

(2) Gibbs의 요청화행

Gibbs(1986)는 요청 표현을 13개의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 소망형(Want/Desire): 청자로 하여금 요청행위 수행하기를 요청할 때,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유형이다.

- a. I want/need you to take a look at the fire.
- b. I'd like to borrow some money.

2) 가능형(Ability):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행위를 할 수 있는지 수행능력을 묻는 유형이다.

- a. Could you give me a ride to school?

3) 기술형(State-of-World): 화자가 요청행위를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 진술함으로써 청자에게 간접적인 요청을 구하는 유형이다.

- a. That machine is out of order.

4) 허가형(Permission): 화자가 청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사용해 요청하고 그

수락을 받아내는 유형이다.

a. May I see your passport?

b. Can I eat a price of cake?

5) 직접질문형(Direct Question): 화자가 직접적인 질문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요청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a. What time is it now?

6) 명칭형(Name Only):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청자가 수행할 요청행위와 관련된 간단한 대상물만을 지칭하는 표현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성이 강하고 요청행위나 대상에 대해 강조하는 유형이다.

a. With sugar.(=I want my coffee with sugar.)

7) 소유형(Possession): 화자가 원하는 사물이나 바라는 행위를 청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유형이다.

a. Do you have a red pen?

b. If you have a car, take me to the airport.

8) 직접요청형(Direct Request): 직접 명령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필요로 하는 요청을 청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a. Pass me the ball right now.

b. Please, close the door.

9) 부담형(Imposition): 청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형식으로 화자가 원하는 바를 표현을 통해 허락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a. Would you mind if I see your homework?

10) 언질형(Commitment): 청자에게 요청행위를 수행하라는 분명한 확답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a. Will you clean the kitchen before noon?

b. Would you give some water to plants?

11) 유일형(Unique): 제안의 의미를 지닌 정형화된 표현(e.g., Why don't-?, How about-?)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요청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유형이다.

a. How about making chocolate together?

b. Why don't you go to swim after work?

12) 매입형(Embedded): 한 가지 요청 유형을 다른 표현에 포함시켜 공손함의 강도를 높여 요청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유형이다.

a.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suggest interesting places.

13) 의무형(Obligation):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시하는 유형으로 청자에게 요청의 수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a. We should go to the conversation, shouldn't we?

Gibbs의 요청화행 유형분석은 앞선 Searle(1979)의 분석보다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다. 그렇지만 직접 요청화행과 간접 요청화행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깊이 요청화행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13개의 요청화행 유형 중에 부담형, 직접의문형, 언질형, 유일형 등의 구별을 구체적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리성이 떨어진다.

(3) Blum-Kulka의 요청화행

Blum-Kulka(1987)는 요청화행을 9가지로 요청전략과 공손성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1) 법에 의한 도출문(Mood Derivable): 주로 명령형을 사용하며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유형이다.

a. Clean up the kitchen.

b. Look at me right now.

2) 명백한 수행문(Explicit Performative):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행동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발화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이다.

a. I'm asking you to move your car.

3) 약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 문장 안에 수행동사를 포함시켜 화자의 요청사항을 보다 공손하게 드러내는 유형이다.

a. I would like to ask you to move your car.

4) 의무 진술문(Obligation Statement): 청자에게 요청 행위가 의무임을 상기시키는

유형이다.

- a. You'll have to move your car.
- b. You must go home immediately.

5) 소망 진술문(Want Statement): 화자의 바람과 소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유형이다.

- a. I would like you to clean the kitchen.
- b. I want you to move your car.

6) 제안성 어구(Suggestory Formula): 제안하는 내용과 형식을 사용해 요청하는 유형이다.

- a. How about cleaning up?
- b. Why don't you come and clean up the mess you made last night?

7) 예비 의문문(Query Preparatory): 질문을 사용하여 청자의 요청행위 수행을 준비시키는 유형이다.

- a. Could you clean up the mess in kitchen?
- b. Would you mind moving your car.?

8) 강한 암시문(Strong Hints): 간접성이 강한 유형으로, 강한 암시 의미를 내포하여 청자가 요청 행위를 수행하도록 한다.

- a. You have left the kitchen in a mess.

(=Please clean up your mess, it is your duty to clean the kitchen.)

9) 약한 암시문(Mild Hints): 부드럽고 약한 암시로 청자의 반응을 이끄는 요청 유형이다.

- a. We don't want any crowding. (As a request to move the car.)

Blum-Kulka의 요청화행은 수행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시문을 요청화행 유형에 추가하여 기존 요청화행 분류 이론을 발전시켰다. 약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을 별도로 내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Blum-Kulka의 요청화행 또한 직접 요청화행과 간접 요청화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각 유형별 실제 사용빈도와 관련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이 교과서 요청화행의 분석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4) Trosborg의 요청화행

마지막으로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유형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채택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Trosborg(1995)는 요청화행을 ‘화자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청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발화수반력을 내포한 언어 행위’라고 정의한다. Trosborg(1995)는 덴마크 대학의 20세부터 35세까지의 영어권 원어민을 대상으로 요청화행이 포함된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원어민들이 요청 상황 속에서 답변한 요청화행들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앞의 학자들과 차별적인 부분은 요청화행을 직접 요청과 간접 요청을 나누어 분류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요청유형의 사용비율을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교과서의 분석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Trosborg(1995)는 요청을 직접·간접성을 구체적인 유형 기준으로 하였으며 담화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발화를 요청화행으로 인정하여 화행 사용비율을 객관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앞선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Trosborg는 아래의 <표4>와 같이 요청화행 유형을 분석했다.

<표4> Trosborg의 요청화행 유형 분류

Request Strategy (presented at levels of increasing directness)	
Situation: Speaker requests to borrow Hearer's car.	
Category. I Indirect request	
Strategy 1. Hints (mild) (strong)	I have to be at the airport in half an hour. My car has broken down. Will you be using your car tonight?
Category. II Conversationally indirect (hearer-oriented conditions)	
Strategy 2. Ability Willingness Permission	Could you lend me your car? Would you lend me your car? May I borrow your car?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How about lending me your car?
Category. III Conversationally indirect (speaker-based conditions)	
Strategy 4. Wishes Strategy 5. Desires/ needs	I would like to borrow your car. I want/need to borrow your car.
Category. IV Direct request	
Strategy 6. Oligation Strategy 7. Performatives (hedged) (unhedged)	You must/have to lend me your car. I would like to ask you to lend me your car. I ask/require you to lend me your car.
Strategy 8. Imperatives Elliptical phrases	Lend me your car. Your car (please).

(Trosborg, 1995: 205)

1) Category. I Indirect request

첫 번째 범주는 간접적으로 구분된 세 범주 중에서도 가장 간접적인 유형이다. 암시를 나타내는 Hint가 구체적인 전략으로 포함된다.

① Strategy 1. Hints (Mild/Strong): 구체적인 요청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화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문은 Mild Hint, 화자의 요청이나 바람 언급한다면 Strong Hint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My soup is little bland.'는 mild hint를, 'I can't reach the salt.'는 strong hint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2) Category. II Conversationally indirect(Hearer-oriented conditions)

두 번째 요청화행의 범주는 간접적 구분의 두 번째로 분류된다. 주로 청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행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두 하위 전략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② Strategy 2: 구체적으로 능력과 의지, 허락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A. Ability: 청자가 요청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묻는다.

a. Can you reach the salt?

B. Willingness: 감사나 의지, 희망을 표현하며 청자의 의지를 묻는다.

a. I'd be grateful if you'd pass me the salt.

C. Permission: 청자에게 허락과 허가를 구하는 요청화행 유형이다.

a. May I borrow the salt?

③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제안을 통해 요청을 나타낸다.

a. How about passing the salt?

b. Why don't you pass the salt?

3) Category. III Conversationally indirect(Speaker-based conditions)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적인 요청화행으로, 소망과 필요 혹은 욕구의 두 하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Strategy 4. Wishes: 화자가 청자에게 소망과 바람을 표현하는 유형이다.

a. I would like to have the salt.

⑤ Strategy 5. Desires/needs: 보다 적극적으로 욕구와 필요를 표현한다.

a. I want you to pass me the salt.

4) Category. IV Direct request

직접적 요청화행으로 구성된 유일한 범주이다. 직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려 한다. 의무, 수행문, 그리고 명령 혹은 생략의 하위 전략으로 구분된다.

⑥ Strategy 6. Obligation: 화자가 의무로 요청사항을 부과하는 표현이다. should와

ought to는 도덕적 의무, have to는 외부적 원인, must는 화자가 정한 의무를 나타낸다. 즉 ‘You should/ought to/must pass the salt.’는 서로 다른 미묘하고 세심한 뉘앙스 차이를 갖는다.

⑦ Strategy 7. Performatives: *request, ask, order, demand, command* 등의 구체적인 수행동사들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a. I would like to ask you to pass me the salt.

⑧ Strategy 8: 명령문과 생략문의 형태로 대표되는 유형이다.

a. The salt, please.

이처럼 Trosborg는 8가지로 분류한 요청화행 유형은 그 기준과 근거가 논리적이이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또 Trosborg는 영어 원어민들이 각 요청 유형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했다. 유형별 사용비율을 밝힌 Trosborg의 연구 결과는 다음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5> Trosborg(1995)의 원어민 요청화행 빈도에 따른 순서

순위	요청유형	예시문	비율(%)
1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Could you lend me your car?	48.2
2	Hints	My car has broken down.	22.8
3	Wishes	I would like to borrow your car,	10.8
4	Imperatives	Lend me your car.	9.6
5	Desires/needs	I want to borrow your car.	6
6	Suggestory formulae	How about lending me your car?	2.4
7	Obligations	You must lend me your car.	0
	Performatives	I ask you to lend me your car.	

<표5>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원어민들은 요청화행 발화 시 Ability/Willingness/Permission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 유형이 50%에 해당할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원어민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요청유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Hints와 Wishes 유형이 각각

22.8%, 10.8%의 비율로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실제 원어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Obligations와 Performatives 유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접화행이 요청화행으로 사용되는 일이 매우 희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어민들은 간접성이 강한 간접화행 유형을 요청화행 시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의 이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청화행이 공손성을 수반해야하며 영어권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관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rosborg(1995)는 Searle(1969), Gibbs(1986), Blum-Kulka(1989)의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요청화행의 유형을 직접성, 간접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요청화행의 유형을 사용비율에 따라 정리했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갖는다. 특히 Trosborg가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요청화행 유형 사용비율을 밝히고 담화 맥락에 따라 요청의 범주를 넓혔다는 점에서 교과서 화행 비교 분석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선행연구

요청화행(request)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행이며 잘못 사용할 경우 대화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부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화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행 중 하나이다(Blum-Kulka, 1989). 이런 점에서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요청화행 분석에 관한 연구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을 증진시키는 화행 교수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실시되어왔다. 이 두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선민(2012)은 Trosborg(1995)의 이론을 준거로 삼아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의 대화문에 등장하는 요청화행을 비교·분석하였다. 양 국의 교과서의 분석 결과, 일본 영어 교과서보다 한국 영어 교과서의 담화지문에서 요청화행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교과서가 Trosborg의 기준에 의한 다양한 화행 유형들을 더욱 폭넓게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형별 사용빈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교과서의 담화 지문 속 요청화행의 비율은 원어

민의 실제 요청화행 비율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요청유형을 주로 다루는 반면 실제 원어민들은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간접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요청화행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영어교과서가 실제적인 화행 학습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최선민(2012)은 한국 영어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Trosborg의 여덟가지 요청표현에 관한 예문을 골고루 포함하여 학생들의 화행 지식과 언어구사 능력을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 제한점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특정 요청화행만 분석하였으므로 이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영어교과서가 요청화행을 잘 드러내고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한국과 일본교과서만을 비교하여 다양한 나라의 영어 교과서와 비교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전 학년을 넘나드는 다양한 수준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화행 지도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세영(2014)은 Blum-Kulka(1989)의 연구를 기준으로 2009개정 고등학교 영어 I 교과서 5종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나는 요청화행을 미국드라마의 일부 담화들을 선별하여 교과서의 요청화행과 비교, 분석하였다. 5종의 영어 교과서 분석 결과, 화자와 청자의 권한이 같은 상황인 친구 사이 관계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을 교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원어민은 주로 화자중심과 소망형의 요청화행을 사용하지만 교과서의 요청화행은 이러한 화행유형이 낮은 비율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2009개정 고등학교 영어 I 교과서가 실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대화지문을 포함하지 못함을 증명하였다. 김세영(2014)의 연구는 2009개정 고등학교 영어 I 교과서만을 한국 교과서의 표본으로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목의 다양한 영어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전인재(2006)는 12종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안의 과업 활동 텍스트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영어 교육과 과업 중심의 영어 교육의 반영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과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과업 활동의 입력자료의 실제성과 적절성을 확

인해야 한다. 둘째, 과업활동의 효율적인 환경 제공을 위해 짝 활동, 모둠 활동과 같은 조직환경 제시비용이 균형을 유지해야하며 교사가 역동적인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 셋째, 과업은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유형을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과업 활동의 의사소통 주제 및 기능이 균형있게 소개되어야 한다. 전인재의 연구는 제 7차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였으며 교과서 내 활동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의 화행 활동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화행 교수 방안들을 다양한 범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화행 교수방안에 대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인경(2021)은 실제 고등학생 현장에서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실태를 분석하고 본래 수행평가의 취지에 맞게 수행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암기하며 말하기 유형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역량 향상을 돕는 다양한 유형이 혼합된 말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말하기 수행평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의 주제,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위한 화행 교수방법 제안을 위해 교재분석, 학습환경 및 말하기 활동 방법, 수행평가 방안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행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고 한국 영어 교과서와 실제 영미권 문화의 요청유형 비율의 비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유형 분류와 그 결과를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연구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화행 교수의 목적인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 방법들을 학습환경, 교재분석, 역할 놀이, 평가방식으로 분류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이 단순히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을 분류하고 원어민들의 요청화행과 비교,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므로 본 연구는 요청화행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 방법

제 3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들의 요청화행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을 증진하는 교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여 요청화행 유형별 빈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영어 I, 진로영어, 실용영어, 관광영어, 비즈니스 영어 5종의 교과서에서 요청화행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대화가 포함된 듣기, 말하기의 과업 활동만을 본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의 경우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듣기, 말하기 과업 활동의 영어 표현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 수립, 협상, 클레임 등 무역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통신문 작성에 관한 학습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예외적으로 통신문 작성 지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5종의 영어 교과서는 실제 연구자가 재직 중인 특성화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교과목의 영어와 전문 교과목의 영어 교과서를 선택하여 폭넓게 제시하였다. 다음 <표6>은 분석 대상인 총 5종의 영어 교과서 출판사, 분석범위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6>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분석범위 및 내용

교과서명/ 출판사	분석범위	학습내용	
영어 I / (주)와이비엠	-Ready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Task	1. 꿈과 진로 2. 언어의 다양한 표현 3. 음식과 문화 4. 자연 현상과 안전 5. 예술작품 감상	6. 자원봉사와 여행 7. 생활 속의 창의력 8. 환경오염과 친환경적 삶 9. 스포츠와 과학 기술 10. 공감
진로 영어/ (주)와이비엠	-Listen&Speak1 -Listen&Speak2 -Talk, Talk	1. 행복한 삶의 가치 2. 자아 발견 3. 직업세계 탐방 4. 역할 모델 탐색 5. 진로 결정 및 계획 6. 진학 및 취업 준비	
실용영어/ (주)와이비엠	-Listen&Speak1 -Listen&Speak2 -Speak in Real Life	1. How to organize yourself better 2. Think green, act green 3. Journey into Korea 4. Eat smart for a healthier you 5. Are you media literate? 6. One step closer to your future	
관광영어/ (주)이젠미디어	-Situation1 -Situation2	1. 기초 회화 2. 여행 업무 회화 3. 의료 관광 업무 4. 호텔 업무 회화 5. 판매 업무 회화 6. 안내 및 해설 업무 회화	
비즈니스 영어/ (주)이오북스	-Practice Sentence	1. 비즈니스 영어의 기초 2. 거래 관계의 수립 3. 협상 4. 클레임	

본 연구는 2015 개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사항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보통교과, 전문 교과군의 다양한 영어 교과목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영어 I 은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채택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교과에 속한다. 진로 영어와 실용 영어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중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영어 교과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영어 선택 과목이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일

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어 교과이며 <표 6>의 학습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의 진로와 실제적 영어 사용에 초점을 둔다. 관광 영어와 비즈니스 영어는 전문교과 II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소속한 특정 학과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영어표현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미용, 관광, 레저와 관련한 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관광 영어를 배우며 경영, 금융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들은 비즈니스 영어를 학습하여 앞으로의 취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가 공통 과목인 영어 교과서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면 본 연구는 특성화고에서 주로 채택되어지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영어 교과서와 전문 교과목의 영어 교과서와 같은 다양한 영어 교과목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특성화고에서 사용되는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5종의 대화문에 나타난 요청화행을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분류 기준을 토대로 추출하였다. 이 때 화자가 청자에게 수행을 유도하는 발화를 전부 요청화행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어떤 발화가 명령, 충고, 사과 등의 다른 화행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대화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요청화행에 포함시켰다.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형화된 요청 표현의 발생 횟수를 모두 빈도에 포함시켰다. 동일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학습자가 해당표현에 자주 노출되어 화행 학습의 촉진을 이끌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영어 문장구조일지라도 화자의 요청화행을 드러낼 때에 이를 요청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교과서의 요청화행 기재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교과서 별로 분석 범위 내의 듣기와 말하기 전체 대화문 문장의 개수를 확인한 후, 요청화행이 드러난 문장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를 비율로 환산하여 교과서 별로 비교·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분류를 준거로 하여 각 교과서 대화 지문에서 추출한 요청화행 문장들을 비교할 것이다. Trosborg는 직접·간접성

정도와 청자·화자 관점인 4개의 범주에 따라 요청화행을 총 8개의 전략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요청화행 유형 분석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Trosborg가 제시한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을 비슷한 비율로 제시한 교과서가 있다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돕는 교과서로 고려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각 영어 교과서의 EFL 상황에서 학습 효용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유형을 준거로 사용하여 각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별 사용비율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Trosborg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요청화행 유형 비율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기에 교과서 간 비교분석에 있어 적용의 폭이 넓다. 본 연구에서는 Trosborg의 연구에서 제시된 원어민들의 요청 사용 비율을 각 교과서의 요청화행 등장 빈도 순위와 비교·분석하여 각 교과서가 요청 화행교수에 있어 EFL 학습 자료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수법을 분석하기 위해 교실 학습환경, 교재분석, 협동학습, 평가방안의 총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교실 학습환경은 Brumfit(1984)의 의사소통 정확성과 유창성의 관점에서 고려할 것이다. 둘째, 5종의 영어 교과서의 의사소통 학습내용과 활동들을 살펴보고 보다 실제적 맥락에 바탕을 둔 활동을 선별, 분석하여 유의미한 활동의 특징을 정리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자주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 놀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역할 제시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넷째, 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평가방법을 수행평가로 정하여 각 평가의 장점과 실현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4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기재된 요청화행의 비율과 요청유형별 분류를 Trosborg(1995)의 요청 유형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한 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영어 교과서별 요청화행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고 화행 교수를 통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돕는 다양한 교수 방법 분석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4.1 요청화행의 기재비율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은 모두 각각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자의 의사소통기능 향상을 도모하며 요청을 포함한 충고, 감사, 칭찬 등의 여러 범주의 화행 표현을 제시하고 있었다. 관광영어 교과서가 주로 말하기와 듣기의 영역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영어1, 진로영어, 실용영어,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4가지 영역을 토대로 다양한 화행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 화행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화행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각 교과서에 제시된 요청화행의 빈도수와 유형에서 차이가 있었다. 각 교과서에서 발견된 요청화행의 빈도는 다음 <표7>과 같다.

<표7>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별 요청화행 빈도

교과서 구분	영어 I	진로영어	실용영어	관광영어	비즈니스영어	합계
요청화행 개수	70	72	39	152	64	397

위의 <표7>에 제시된 것처럼 영어 교과서 5종에 등장한 대화지문 속 문장에서 드러난 요청화행은 총 397개였다. Trosborg(1995)가 제시한 요청의 정의에 알맞은

요청화행을 분석한 결과이다. 관광영어 교과서에서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총 152개의 가장 많은 요청화행을 포함하였다. 영어 I, 진로영어, 비즈니스영어 교과서는 64-72개의 요청화행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분석 교과서의 요청화행이 평균적으로 약 70개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청화행의 절대적인 개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별로 대화형식 문장의 총 개수를 세어 그 중에서 요청화행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상대적인 비율로 정리하였다. 이는 교과서별 요청화행의 노출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각 교과서에서 요청화행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확인하도록 도울 것이다. 교과서별 대화지문의 요청화행 비율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총 문장 중 요청화행 비율

교과서 구분	영어 I	진로영어	실용영어	관광영어	비즈니스영어	합계
요청화행(개)	70	72	39	152	64	397
전체 문장	445	353	394	1193	353	2748
요청화행 비율(%)	15.73	20.40	9.90	12.74	18.13	14.47

<표8>을 살펴보면, 진로영어 교과서는 요청화행의 절대적인 빈도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요청화행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교과서의 학습내용이 주로 학생들의 진로, 직업에 관해 요청하고 조언하는 것이며 진로 고민에 있는 학생들에게 명령문 또는 제안문의 형식의 진로 조언 등의 요청화행을 빈번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관광영어 교과서가 가장 많은 요청화행 빈도를 보였지만, 대화문에서 요청화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광영어 교과서에 많은 대화 문장이 제시되어 상대적 요청화행 노출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광영어 과목의 주된 목표가 학생들이 다양한 화행표현을 학습하는 것으로 요청화행 뿐만 아니라 거절, 사과, 제안 등의 다양한 화행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실용영어 교과서는 유일하게 10%가 못 미치는 요청화행 비율을 보였다. 실용영어 교과서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다른 교과서와 유사한 비중으로 수록하고 있지만, 각 단원마다 리포터가 설명하는 1인 발표 형식의 대화 지문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1인 발표는 2인 이상의 담화와 달리 화행 요소가 덜 드러나므로 해당 교과서의 요청화행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 추론해 볼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의 전체 대화 문장들 중에 요청화행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14.47%로 드러났다. 교과서 내에 요청화행의 비율이 15%에 육박할 정도이므로 학습자들이 해당 화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 다만 진로영어 교과서의 가장 높은 비율과 실용영어 교과서의 가장 낮은 비율 차이가 10%를 넘는 것을 볼 때, 교과서 전체의 평균이 갖는 의미는 교과서 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교과서가 지향하는 학습목표가 다르다는 점에서 교과서 별 요청화행의 유형을 Trosborg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교과서별 요청유형 비율이 원어민의 실제적인 요청유형 사용비율과 일치하는지를 Trosborg의 요청화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봄으로써 교과서별 요청화행 문장들이 실제적인 상황 맥락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4.2 요청화행 유형별 분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에 나타난 397개의 요청화행들을 Trosborg(1995)의 연구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9>와 같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들이 Trosborg가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요청화행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교과서가 요청화행 유형을 다양하게 포함하여 학습자들의 요청화행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여러 맥락 속에서 알려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9> Trosborg 요청화행 유형에 따른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분류(단위: %)

	영어 I	진로영어	실용영어	관광영어	비즈니스 영어	계
Strategy 1. Hints	18 (25.72)	5 (6.94)	7 (17.95)	22 (14.47)	15 (23.44)	67 (16.88)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11 (15.71)	13 (18.06)	10 (25.64)	61 (40.13)	16 (25)	111 (27.96)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12 (17.14)	14 (19.44)	9 (23.08)	9 (5.92)	5 (7.81)	49 (12.34)
Strategy 4. Wishes	4 (0.57)	12 (16.67)	3 (7.69)	17 (11.18)	9 (14.06)	45 (11.34)
Strategy 5. Desires/needs	7 (1)	6 (8.33)	6 (15.38)	3 (1.97)	1 (1.56)	23 (5.79)
Strategy 6. Obligations	7 (1)	4 (5.56)	0 (0.00)	3 (1.97)	1 (1.56)	15 (3.78)
Strategy 7. Performatives	0 (0.00)	0 (0.00)	0 (0.00)	1 (0.66)	1 (1.56)	2 (0.50)
Strategy 8. Imperatives	11 (15.71)	18 (25)	4 (10.26)	36 (23.68)	16 (25)	85 (21.41)

가장 많은 요청화행을 포함한 관광영어 교과서와 가장 적은 요청화행을 드러내는 실용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을 비교 분석해볼 때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을 제외하고 전체 요청화행의 빈도와 관계없이 다양한 요청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Strategy 7. Performatives의 요청의 경우 5종의 교과서에서 대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에서만 선택하는 전문교과인 관광영어,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는 Trosborg가 제시하는 7개의 요청 유형을 모두 충족시키는 차별성을 보였다.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과 Strategy 8. Imperatives 유형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다른 교과서와 구분되었다. 교과서 별 요청화행 제시에 관한 우위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화행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서 5종은 실제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요청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표9>에서 제시한 요청화행의 분류를 유형별 빈도에 따라 순위를 매

겨 원어민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요청화행 유형별 비율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별 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요청화행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원어민의 요청화행 유형별 빈도와 연구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의 유형별 빈도가 유사하다면 2015 개정 영어 교과서가 영어권 문화의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요청화행의 유형별 빈도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5종의 영어 교과서 분류 결과를 사용횟수와 비율을 기준으로 재분석하여 유형별 사용비율 순위를 정리하였다.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유형 빈도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2015 개정 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유형별 빈도

순위	요청화행 유형	사용횟수 및 비율(%)
1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111(27.96)
2	Strategy 8. Imperatives	85(21.41)
3	Strategy 1. Hints	67(16.88)
4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49(12.34)
5	Strategy 4. Wishes	45(11.34)
6	Strategy 5. Desires/needs	23(5.79)
7	Strategy 6. Obligations	15(3.78)
8	Strategy 7. Performatives	2(0.50)

<표10>의 요청화행 유형별 사용비율을 토대로 요청화행의 실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Trosborg의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2015 개정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별 사용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표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Trosborg는 20-35세 사이의 영어 원어민 83명을 대상으로 요청화행 연구를 실시했다. 원어민들이 답변한 내용들을 수집하여 요청화행 유형을 정리하였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를 50%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Strategy 1. Hints 유형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Strategy 6. Obligations,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 요청유형을 실제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서는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Strategy 8. Imperatives 그리고 Strategy 1. Hints 유형이 각각 27.96%, 21.41%, 그리고 16.88% 비율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rosborg의 원어민 요청유형 비율과 비교했을 때, 원어민들이 Ability, Hints 유형을 전체 요청화행의 71%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2015 개정 영어 교과서가 실제적인 영어 사용 맥락을 적절히 반영하여 요청화행 유형을 어느정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 교과서에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의 사용비율이 약 4%정도로 가장 낮은 데, 이는 Trosborg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2015 개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직접적 요청유형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간접 요청유형을 잦은 비율로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Trosborg의 연구결과와 상이했던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사용비율을 살펴보자면 2015 개정 영어 교과서에서는 이 유형이 12.34% 비율로 사용되지만 실제 원어민 대화 참여자들은 2.4%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서는 ‘Why don’t you-?’, ‘Let’s-’, ‘How about-?’의 요청화행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평소 제안 표현 방식을 통해 청자에게 요청에 대한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Shall we-?’, ‘Why don’t we-?’와 같이 우리 (we)의 빈번한 사용은 개인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영어 교과서에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유형은 실제 원어민의 사용비율보다 빈번히 등장하므로 실제 원어민의 요청 유형을 잘 반영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Strategy 8. Imperatives 요청유형은 실제 원어민들의 요청화행에서 9.6%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2015 개정 영어 교과서에서는 21.41%의 다소 높은 비율로 등장한다. 직접적인 요청 표현을 꺼려하는 영어권 문화의 사람들의 스타일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학습자는 영어 교과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직접적인 요청 표현을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실제 맥락과 상이한 교과서의 요청화행의 구성은 학습자에게 실제성이 동떨어진 직접적인 요청화행을 당연히 사용하도록 이

끝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영어 교과서는 Strategy 8. Imperative 요청 유형의 사용 빈도를 줄이고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Strategy 2. Ability, Hints, Wishes 유형에 더 자주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교과서 유형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Trosborg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요청화행 유형 사용 순위를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용횟수와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와 Strategy 8. Imperative 유형 비교를 통해 영어 요청화행 유형 학습에서 모국어인 한국어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익숙한 직접적인 요청 패턴과 제안 표현이 영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한다면 자연스러운 영어 요청화행 습득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요청화행 유형 비율을 원어민의 요청화행 사용과 비교하여 실제 영어 문화권 맥락과 유사한 요청화행 유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각 교과서의 요청화행을 Trosborg 준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4.3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별 요청화행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별 요청화행 유형과 사용빈도의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요청화행에 적절히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인 특성화고 5종 영어 교과서 모두 듣기, 말하기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은 학생들이 다양한 화행 표현을 중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에서 설정한 각 교과만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라는 교육과정 하에 동일한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각 교과서만의 차별적인 내용구성으로 요청유형의 빈도와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한 교과서의 요청화행 분석은 화행학습에 효과적인 교과를 파악하여 다양한 영어 교과서들의 개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4.3.1 영어 I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영어 I 교과서에서 사용된 요청 표현은 총 70개이며 유형별 빈도 순위와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 <표11>과 같다. Trosborg의 연구에서 상위 순위권에 있던 Strategy 1. Hints와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이 영어 I 교과서에서 높은 비율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어민들이 쓰고 있는 간접적인 요청 유형이 교과서 내 대화 지문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은 학습자들이 실제 영어권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요청화행 유형을 영어 I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 원어민들이 요청화행에서 잘 쓰지 않는 직접형 요청화행 유형인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와 Strategy 8. Imperatives가 영어 I 교과서에서 각각 2, 3 순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청자중심을 강조하는 한국적 화행이 영어 교과서에 전이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1> 영어 I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순위	요청화행 유형	예시	빈도(%)
1	Strategy 1. Hints	I'll be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works.	18(25.72)
2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How about making her a carrot cake?	12(17.14)
3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Can you tell me how to make it?	11(15.71)
	Strategy 8. Imperatives	Look at this picture in the newspaper.	11(15.71)
5	Strategy 5. Desires/needs	I need your advice on my career plan.	7(1)
	Strategy 6. Obligations	You should love and understand children.	7(1)
7	Strategy 4. Wishes	I would like to try a dish I've never eaten before.	4(0.57)
8	Strategy 7. Performatives	-	-

구체적으로 영어 I 교과서 Lesson 3의 주제인 음식과 문화를 중심으로 ‘요청하기’

화행을 학습목표로 하는 대화 지문의 요청화행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I like spicy food. Mmm... This is great. Can you tell me how to make it?

(=Strategy 2. Ability)

B: Okay. How about coming over to my house this Saturday? I'll show you

how to make it.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A: Thank you. I'll see you at noon on Saturday. (=Strategy 1. Hints)

(영어 I : 51)

위 대화지문은 Listen & Speak의 일부분만을 인용한 것으로 Trosborg가 정리한 다양한 요청유형을 집약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Can you tell me how to make it?' 은 A가 B에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발화로 Strategy 2. Ability 유형에 해당한다. 'How about coming over to my house this Saturday?' 은 B가 A에게 이번주 토요일에 집에 들르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A가 요청의 표현으로 'I'll see you at noon on Saturday.'로 응답하면서 전체 담화가 마무리된다. 특히 이 문장은 Trosborg의 요청 분류 중 Strategy 1. Hints의 Strong hint에 해당한다. 화자 A가 B에게 토요일에 만날 것을 명확하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4.3.2 진로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진로영어 교과서는 분석 대상 교과서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총 72개의 요청화행을 많이 포함하였다. 특히 교과서 전체 듣기, 말하기 대화 문장들 중에 요청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한 요청표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진로영어 학습목표가 학생들이 교사, 부모 또는 선배에게 진로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청자가 조언과 당부할 사항을 요청화행으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12>에 제시된 것처럼 총 8가지 요청유형 중 Strategy 8. Imperatives와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가 가장 많이 쓰인 점도 이에 대한 증거로 들 수 있다.

<표12> 진로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순 위	요청화행 유형	예시	빈도(%)
1	Strategy 8. Imperatives	Don't forget to put some notes on the pictures.	18(25)
2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Why don't you run an Internet shopping mall?	14(19.44)
3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Could you tell me the invoice number?	13(18.06)
4	Strategy 4. Wishes	I'd like to read your newspaper when you're through.	12(16.67)
5	Strategy 5. Desires/needs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using my talent.	6(8.33)
6	Strategy 1. Hints	I look forward to your phone number.	5(6.94)
7	Strategy 6. Obligations	We have to choose baseball players for the school sports day.	4(5.56)
8	Strategy 7. Performatives	-	-

아래 대화문을 통해 Strategy 8. Imperatives와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가 자주 등장하는 진로영어 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 I need to prepare for the practical driving test. (=Strategy 4. Wishes)

Could you help me with this, Dad? (=Strategy 2. Ability)

B: Sure. When is your test?

A: Next Wednesday.

B: Let's go enroll you in an on-road driving course right now.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A: Alright. Thank you so much.

B: While practicing, don't forget to always be careful!

(=Strategy 8. Imperatives)

A: I know.

(진로영어: 104)

위 지문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운전면허 실기 시험 준비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부모와 자식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맥락의 짧은 대화문이지만 5개의 요청화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Trosborg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요청들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다. 아들인 A가 아버지인 B에게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Wishes와 Ability의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청자인 B가 ‘Sure.’로 대답하며 화자의 요청에 응할 날짜를 연결해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의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영어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었듯이 아버지인 B가 조연자의 입장에서 A에게 도로 주행을 등록하러 가는 것과 연습하는 동안 항상 주의해야한다는 충고를 하였으며 이를 A가 각각 ‘Alright.’과 ‘I know.’로 대답하여 요청에 대한 행동을 실천할 것이므로 B의 요청에 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대화 지문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바탕으로 Trosborg가 분류하는 요청화행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요청화행 학습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교사는 교과서에 요청화행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요청화행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위와 같은 지문들이 포함된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이를 실제 현장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4.3.3 실용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실용영어는 공통 과목인 ‘영어’ 교과서나 일반 선택 과목군의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의 진로 분야와 관련된 영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 해당 교과서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 형식에 해당하는 담화 지문들을 수록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학습목표를 적극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 될 필요가 있다.

<표13> 실용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순 위	요청화행 유형	예시	빈도(%)
1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Could you explain what you do?	10(25.64)
2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Why don't you try ginger tea?	9(23.08)
3	Strategy 1. Hints	I'll see you after lunch.	7(17.95)
4	Strategy 5. Desires/needs	I want to buy a toy airplane for Chris.	6(15.38)
5	Strategy 8. Imperatives	Look at this tumbler.	4(10.26)
6	Strategy 4. Wishes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3D printing as a career.	3(7.69)
7	Strategy 6. Obligations	-	-
8	Strategy 7. Performatives	-	-

실용영어 교과서는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실제 영미 문화에서 사용하는 대화를 포함하여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화행 표현 등을 가르쳐 학생들의 실제적 의사소통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 <표13>의 실용영어 교과서 요청화행과 2장의 <표5> Trosborg의 실제 원어민 요청화행 빈도 순서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13>의 실용영어 교과서 화행유형과 2장의 <표5>의 영어 원어민 요청화행 유형에는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과 Strategy 1. Hints가 공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반면 직접적 요청유형인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용영어 교과서가 ‘원어민이 간접 요청유형을 자주 사용한다’는 영미문화의 요청화행 사용을 영어 교과서가 잘 반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표13>에서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유형이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 원어민들은 이 요청유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한국문화가 청자 중심의 협조를 요청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한국어의 요청 유형이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 Hello. I'm Judy Parker from SBC News. I wonder if you can spare a minute. (=Strategy 2. Ability)

B: Sure. How can I be of help to you? (=Strategy 2. Willingness)

A: I want to know what kinds of media you use frequently.
(=Strategy 5. Desires/Needs)

B: Online games are the ones I do most often.

(실용영어: 102)

위의 대화 지문은 거리에서 리포터 A가 학생 B를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담화이므로 실제 상호작용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리포터는 화자중심(speaker-based)의 요청유형을 사용하여 화자에게 인터뷰 할 시간을 내 줄 수 있는지 요청하고 있다. 청자 B는 이를 수락하고 허락을 요청하는 'How can I be of help to you?'를 발화하여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 요청한다. 이는 'Would you let me help you?'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리포터 A는 'want' 진술문을 사용하여 청자B가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지 알고자 한다. 위 대화의 Strategy 5. Desires/Needs 유형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please'와 같은 완화 장치를 사용하면 보다 정중한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4.3.4 관광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관광 영어는 기초회화, 여행 업무 회화, 호텔 업무 회화, 판매 업무 회화, 안내 및 해설 업무 회화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 여행 업무와 관련된 기본 용어, 회화 실무 및 안내 해설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학습 목표로 하므로 5종의 분석 대상 교과서들 중에 가장 많은 요청화행을 포함하고 있다. <표14>를 살펴보면 관광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빈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14> 관광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순 위	요청화행 유형	예시	빈도(%)
1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61(40.13)
2	Strategy 8. Imperatives	Please fill out this form.	36(23.68)
3	Strategy 1. Hints	The schedule has changed slightly.	22(14.47)
4	Strategy 4. Wishes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see the doctor.	17(11.18)
5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How about visiting Daehak-ro?	9(5.92)
6	Strategy 5. Desires/needs	I need your help.	3(1.97)
7	Strategy 6. Obligations	You have to be careful even when you go home.	3(1.97)
8	Strategy 7. Performatives	I'll ask Housekeeping to bring them to you as soon as possible.	1(0.66)

위 <표14>에 따르면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과 Strategy 8. Imperatives와 Strategy 1. Hints 유형이 전체 요청화행의 약 78%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광영어 교과서의 대화 발화자 간의 관계가 공항, 호텔, 의료기관, 상점 및 관광지 분야의 서비스 종사자와 관광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Trosborg의 분석 결과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Strategy 6. Obligation과 Strategy 7. Performatives유형도 낮은 비율로 등장하는데 이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을 강한 어조로 요청하거나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청화행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대화는 관광 서비스 종사자와 고객의 요청화행과 반응이 번갈아 가며 자주 등장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Trosborg의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A: Good afternoon, JY Industries. How may I help you? (=Strategy 2. Willingness)

B: Yes, I would like to speak to Ms. Judy Smith, please. (=Strategy 4. Wishes)

A: I'm sorry. Ms. Smith is out of the office at the moment. May I ask who's calling? (=Strategy 4. Willingness)

B: ...Do you know when she'll be back?

A: I don't know, sir. Would you like to call back later or leave a message?

B: I'll leave a message.

A: Just a moment, sir. I have to get a pen. Okay, sir. Go ahead. (=Strategy 8. Imperatives)

B: Please ask her to call me at 7 this evening. My number is 234-5678.
 (=Strategy 8. Imperatives)

(관광영어: 36)

위 대화는 B가 A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B가 소통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A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이다. 수신자 A는 'How may I help you?'를 사용하여 발신자에게 허가를 구하는 요청과 'May I ask who's calling?'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신자의 정보를 요청한다. 이처럼 관광영어 교과서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서비스 종사자와 손님의 친밀도가 낮으므로 다수의 'How may I help you?', 'May I-?'와 같은 정중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발신자 B는 'I would like to-'의 표현을 사용하여 전화의 목적인 담당자 Judy Smith를 바꿔주기를 요청한다. 관광객 또는 손님들은 Strategy 4. Wishes 화행을 통해 관광 정보 요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한다. 수신자 A는 'Just a moment'와 같이 동사가 생략된 명령문의 요청화행을 통해 B에게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고 B는 'please'를 붙이는 온화한 어투의 명령 요청화행을 하여 A에게 담당자의 전화 회신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따라서 Strategy 8. Imperatives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와 고객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There isn't any shampoo. (=Strategy 1. Hints)

B: OK. You need two pillows and a shampoo. Is that correct?

A: Yes, it is.

B: OK. I'll ask housekeeping to bring them to you as soon as possible.

(=Strategy 7. Performatives)

(관광영어: 132)

위의 대화는 관광영어 교과서의 'Hotel Service' 단원에서 고객 A가 프런트 직원 B에게 호텔용품을 요청하는 대화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A의 'There isn't any shampoo.' 발언은 '샴푸가 없으니 샴푸를 주세요.'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고객들은 본인의 요청 내용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화의 두 발화자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식이 충분히 있거나 상황적 배경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 특히 고객 A의 Strategy 1. Hints 유형의 사용은 고객이 관광산업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간접적인 요청화행과 이에 대한 반응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대화에서 프런트 직원 B가 '시설관리과에 물품들을 고객에게 가능한 빨리 가져가도록 요청하겠다'라는 직접적인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표현한다. Trosborg(1995)의 연구에서 원어민들은 Strategy 7. Performatives와 같은 직접적인 요청을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위의 프런트 직원 B는 직접적인 요청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4.3.5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비즈니스 영어는 거래 관계 수립, 협상, 클레임 등 무역에서 활용 가능한 각종 양식의 이해 및 실제 작성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교육부, 2015). 비즈니스 영어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어의 기초 회화와 수출입 실무를 위한 통신문 작성 영어 표현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른 교과서와 달리 통신문의 쓰기 영역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 특징을 다음 <표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5>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 요청화행 분석

순 위	요청화행 유형	예시	빈도(%)
1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Can you tell us briefly about your company?	16(25)
2	Strategy 8. Imperatives	Please send us some data on their credit standing.	16(25)
3	Strategy 1. Hints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confirmation.	15(23.44)
4	Strategy 4. Wishes	I would like to discuss our project together.	9(14.06)
5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Why don't you call his cell phone?	5(7.81)
6	Strategy 5. Desires/needs	I just want to know if he got a fax from my company this morning.	1(1.56)
7	Strategy 6. Obligations	The buyer should purchase any minimum quantity of the products from Seller.	1(1.56)
8	Strategy 7. Performatives	We ask you to clear your account as soon as possible.	1(1.56)

<표15>를 살펴보면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 Strategy. 8 Imperatives, Strategy. 1 Hints가 각각 15%의 비율로 전 분석 대상의 약 45%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는 Strategy. 1 Hints 요청유형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이는 비즈

니스 상황 속 거래와 협상을 하는 두 담화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지식을 풍부히 알고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Strategy. 8 Imperatives 요청 유형은 화자 중심(speaker-based)이며 강한 인상의 요청 표현이지만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 유형에 항상 'Please'를 붙여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정중하게 요청을 전달한다. 이는 원만한 거래 관계 수립을 위해 강압적이고 무례한 요청을 하기보다 화자가 원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청자에게 요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영어에 자주 등장하는 통신문 작성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청화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We are looking for a Korean manufacturing company. (=Strategy 1. Hints) If you give us the quotation and price list, it would be thankful. (=Strategy 2. Willingness)
- 2) We wish to make a purchase of Smart Watch from you. (=Strategy 4. Wishes)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 you quotation and price list with earliest delivery schedule. (=Strategy 2. Willingness)

(비즈니스 영어: 61)

위의 요청 표현은 회사 간 협상 시 가격표 및 견적서의 요청과 인도 시기를 문의하는 통신문 영어 표현의 일부이다. 구매 조회를 요청하는 회사가 거래를 위한 상대 회사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기때문에 'We are looking for-'의 간접적 요청화행인 Strategy 1. Hints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는 거래 회사 간에 친밀한 관계정보가 있거나 특정 거래관계와 같은 배경 지식과 상황 특징들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간접적 요청 유형이다. 위의 대화에서는 'It would be thankful-', 'We would appreciate receiving-'과 같은 감사와 소망의 표현을 나타냄으로써 Strategy 2. Willingness 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원만한 거래 관계의 유지와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통신문에서는 다양한 요청유형이 정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요청화행을 위한 실제 교수법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와 요청화행 연구, 화행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화행 연구와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 요청화행의 실제적인 교수법을 제시한다.

5.1 요청화행 연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영어 교과서와 관련된 화행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행 연구의 대부분은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화행과 실제 외국인이 사용하는 화행을 대조·분석하여 영어 교과서 화행의 실제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영어 교과서의 화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은 화행 수업을 돕는 연구들로서 중요한 기초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의 화행 연구와 함께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신장하고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서 적절한 화행을 구사하기 위한 화행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함께 실시되어야 하겠다. 화용적 지식과 화용적 능력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육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화용적 능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때 의사소통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분석 내용인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분석 내용을 토대로 요청화행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요청화행의 실제 교수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통하여 발견한 특성화고 교과서의 요청화행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청화행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화행이며 영어 교과서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화행이지만 교과서에 따라 요청화행 사용과 영어 문화권 원어민들의 실제 화행 사용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5종의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 빈도를 실제 원어민의 요청 유형 사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원

어민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Strategy 8. Imperatives와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화행 유형이 한국 영어 교과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서 안의 요청화행 빈도가 실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요청화행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므로 교사는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 유형들을 수업 실시 전에 분석하여 교과서에서 부족한 화행 유형들을 보충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상생활 속 영어 노출이 어려운 EFL 상황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한국 학습자의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화행 연구, 화행 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연구들이 교과서의 화행 분석과 교수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한 화용 능력의 습득은 학습자가 자연스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화용 문장들을 발화하면서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EFL 상황을 보완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화행 연습을 촉진하는 교수방안을 탐구하여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단순한 요청화행의 학습을 비롯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본인의 화행 사용을 성찰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화행 평가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 발화자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는 화행이라도 다양한 화행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화행 표현을 외우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다양한 화행 표현을 스스로 찾아 익히고 편안한 상황 속에서 친구와 대화를 통해 화행을 내재화하고 자신의 잘못된 화행 표현을 찾아 수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요청화행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대로 요청화행의 실제적인 교수 방안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2 요청화행 교육의 실제 방안

1970년대에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에서 맥락중심의 언어연구가 발달하고 제 2언어 학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의사소통 교수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사소통 교수법은 영어의 문법, 형식의 정확성(accuracy)보다 유창성(fluency)

을 강조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기능 교수를 학습목표로 하여 수업을 설계·진행한다. Enright와 McCloskey(1985)는 의사소통 언어교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제2언어 학습자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외국어를 학습한다. 둘째, 의사소통은 메시지 전달자, 수신자, 메시지 내용과 맥락의 복합적인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 시에 협동학습을 통해 의사소통의 요소들에 노출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언어학습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을 이끄는 학습내용은 학습자의 실제적 삶과 연관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의미 있게 배울 수 있는 이해가능한 입력을 전달해야 한다. 다섯째, 각 학습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의적, 인지적 특성을 지니므로 학습자의 기존 배경지식을 새로운 언어 학습경험과 연계할 수 있는 학습 목표, 활동을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 교사는 학습자 개인의 사회적, 정의적, 인지적 환경 자료를 숙고하여 제2언어 학습을 촉진하는 통합된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목표어 습득은 정의적 여과장치가 낮아야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사소한 오류 피드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학습자는 편안한 학습환경에서 학습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효율적인 목표어 습득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언어교수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요청화행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실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가 실제적 맥락과 유사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교사는 교과서 안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의사소통의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강조하며 학습자가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에 자주 참여하도록 역할놀이, 그룹 활동 등의 협동학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이 발화 시 화행 사용을 스스로 성찰하고 이를 실제적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요청화행 교수 방안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5.2.1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교재분석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의 요청화행이 원어민의 요청화행의 실제적 사용정도와 상당부분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요청화행은 각 교과서에서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 또는 유의미한 맥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업들이 아래 <그림1>-<그림4>처럼 제시되어있다.

B Listen and make a dialog using the given expressions. Then practice it with your partner.



How often ~?

Why don't you ~?, organic restaurant

<그림1> 기계적 연습 유형

<실용영어, p. 96>

<그림1>은 남자의 말풍선 문장 속 대화 상황을 파악하고 주어진 예시 보기의 표현을 활용하여 여자의 대화를 완성한 후에 짝과 함께 주어진 대화를 연습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기계적인 연습은 목표어를 학습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춰 반복하여 익히는 유형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Why don't you-?'의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의 요청화행을 정해진 형태로만 습득할 수 있다. 학습자는 'Let's-', 'How about -ing?' 등의 다양한 요청화행 표현을 주어진 교과서의 표현만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형화된 화행 표현의 기계적인 반복 연습은 다양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유연하게 화행을 구사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lk Together

Practice the dialog with a partner. Use the given expressions.

A: Concierge, how may I help you?

B: Yes, I need some recommendations.

A: What would you like to do?

B: I'd really like to eat Korean food .

A: Well, there is a famous Korean restaurant nearby . From the hotel entrance, walk to the left and turn right at the second corner. It's across from the bank .

B: Thanks a lot.



eat Korean food / see old palaces / On your own

a famous Korean restaurant nearby / a bus that goes to Gyeongbok Palace / On your own

the bank / the post office / On your own

• recommendation: 추천 • amusement park: 놀이공원 • historical site: 사적지 • traditional market: 전통 시장

<그림2> 기계적 연습 유형

<관광영어, p. 126>

<그림2>에서 학습자는 <그림1>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영어 표현들을 사용하여 보다 유의미한 맥락에서 짝과 함께 연습할 수 있다. <그림2>에 주어진 3개의 다른 상황 영어 표현을 활용하여 짝과 연습하여 활동을 마무리하므로 기계적인 반복 연습 활동에 속한다. 이는 의사소통 구문을 익히고 암기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학습자가 요청화행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충분한 연습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영어의 다양한 화행을 비롯한 의사소통 구문을 더욱 효율적으로 내재화하여 다양한 문화, 사회적 맥락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 과제 모형들을 <그림3>과 <그림4>와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D Write and Speak

Think about problems some of the items in your classroom have. Tell your ideas to improve them to your partner.

Item	Problem	Idea for improvement
lockers	they have sharp edges	to cover the edges with tape
trash cans	they are not labeled for recycling	to put labels on them
Your Own		

e.g. A: Which item do you think has a problem?

B: Well, I'm not satisfied with the **lockers** because **they have sharp edges**.

A: Then, let's think about how to improve them.

B: **Why don't we cover the edges with tape?**

A: Oh, I guess that would work!

More Expressions

- I'm not happy with
- How about -ing ...?

<그림3> 유의미한 연습 유형

<영어 I, p. 127>

<그림3>은 학생들이 속한 실제 교실환경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고 수업시간에 배운 화행 표현을 이용하여 영어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그림1>과 <그림2>의 기계적 연습 유형들과 달리 <그림3>은 Why don't we-?, 'How about-ing?'와 표현과 같은 다양한 Strategy 3. Suggestory formulae 유형을 알려주고 'I'm not satisfied with-', 'I'm not happy with-'의 불만족스러운 감정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실제적 맥락 속에서 본인의 삶과 연계한 대화 내용을 직접 선택하여 다양한 영어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교사가 교재에 제공된 영어 표현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화행 표현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써보도록 격려하면 여러 상황 맥락 속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화행표현을 유의미하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D Write and Speak

You are in a bakery. Talk with your partner as a customer and a clerk. Choose what you want to sell or eat on the menu.

Lucy's Bakery

<p>Pies</p> <p><input type="checkbox"/> apple pie</p> <p><input type="checkbox"/> berry pie</p> <p><input type="checkbox"/> sweet potato pie</p> <p><input type="checkbox"/> _____</p>		<p>Your Own</p>	<p>Cakes</p> <p><input type="checkbox"/> chocolate cake</p> <p><input type="checkbox"/> carrot cake</p> <p><input type="checkbox"/> fruit cake</p> <p><input type="checkbox"/> _____</p>		<p>Your Own</p>
---	---	-----------------	---	---	-----------------

e.g. Clerk: We've just baked these **apple pies**. Would you like to try some?

Customer: Thanks. Mmm... It tastes good. I'd like to buy one.

Clerk: Anything else?

Customer: I'd like to buy a **carrot cake**, too.

Can you wrap them separately?

Clerk: Sure. Here you are!

More Expressions

- Do you want to try some?
- Could you wrap ...?
- Please wrap

<그림4> 유의미한 연습 유형

<영어 I, p. 157>

<그림4>는 한 빵집에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습자가 먹고 싶거나 팔고 싶은 빵 메뉴를 정하여 주어진 대화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객과 점원의 역할로 나누어 실제 빵집에서 쓰는 대화를 연습한다. 상황과 주어진 영어 표현들이 있지만 'Would you like to-?', 'Can you-?', 'Do you want to-?', 'Could you-?', 'Please wrap-' 'I'd like to-'의 다양한 요청화행을 학습자가 실제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맥락에서 연습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습 활동에 해당한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요청화행을 짧은 시간 내에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화행 연습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인 교과서 5종의 듣기, 말하기 요청화행 활동을 분석한 결과 <그림3>과 <그림4>와 같이 영어 I 교과서가 다양한 화행과 영어 표현이 함께 제시된 유의미한 연습 활동들을 수록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영어 회화 향상을 학습 목표로 하는

실용영어 교과서는 유의미한 연습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관광영어 교과서는 모든 연습 활동이 주어진 상황과 영어 표현들만을 사용하는 기계적 연습 활동들만을 수록하였다. 실제 상황에서 영어 회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 영어, 관광 영어와 같은 전문 교과서가 유의미한 연습 활동이 부족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전에 이를 인지하고 부족한 요청화행 유형과 요청화행이 사용되는 실제 발화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교과서 재구성 또는 학습 활동지의 보충으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자유자재로 의사소통 영어 표현을 연습하는 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5.2.2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학습환경 및 역할 놀이

EFL 학습 환경에 있는 학습자들은 교실 속에서 영어담화에 노출정도가 낮으며 영어로 대화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담화에 참여하여 화행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

Canale과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언어의 숙달, 형태의 규칙의 언어 지식을 의미하며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대화에 참여하는 담화자들 간의 관계, 공유하는 정보 또는 의사소통 목표와 같이 의사소통이 행해지는 사회적 맥락의 이해를 내포한다.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이란 대화를 시작, 유지, 종결하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대화 상황의 책략적인 능력이며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대화 전체의 통일성과 논리성, 문장 간의 결합을 통해 전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일관성(coherence), 결합력(cohesion)을 포괄한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이란 주어진 맥락 속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환경은 언어 기호와 규칙을 알고 바르게 활용하는 언어적 정확성 뿐만 아니라 사회 언어학적 능력과 유창성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Brumfit(1984)에 따르면, 의사소통 방법론을 형태의 수정과 적절성을 강조하는 정확성과 의사소통 의미를 중점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인 유창성으로 구분한

다. 정확성이 문법,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교사 중심인 데 반해 유창성은 의미기반의 학습자 중심이 특징이다. 제2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 요구가 각기 다르므로 수업의 초점이 학습 대상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사소통에서 언어 발화는 자동적이고 동시다발적이며 기대치 못한 상황에서 행해지므로 정확성을 강조하는 외국어 학습은 실제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비효율적이다. 정확성을 요하는 학습활동과 대조적으로 유창성 활동들은 교실 내의 상호작용이 교실 밖의 실제 상황의 상호작용과 흡사하다. 따라서 학습자의 유창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요청화행 학습활동은 과업 중심의 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과업 시작 전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습 활동을 안내하여 요청화행의 적절성과 형태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과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요청화행이 자주 사용되는 활동들을 배치하면 유창성을 중점으로 정확성을 통합하는 화행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화행 오류 수정은 교실 학습 활동들과 연계되어 학습자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화행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언어, 형태의 오류 지적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는 의미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편안한 교실 속에서 정의적 여과장치가 낮아지면 목표 화행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화에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는 화행 표현을 더 배우고자 하는 내재적 학습 동기를 가질 것이다.

바람직한 화행 학습환경 외에도 언어 교수에 있어 의사소통 접근방법으로 역할 놀이(role play)의 사용은 화행 기능을 교수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할 놀이는 특정 상황을 정하여 학습자들이 상황 속에서 부여받은 인물의 역할을 맡아 말하는 활동이다. 역할 놀이는 교실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속에서 벗어나 교실 밖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제2언어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하여 활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따라서 역할 상호작용의 학습 잠재성, 역할 상호작용의 담화 잠재성, 역할 상호작용의 사회언어학적 잠재성 측면에서 역할 놀이의 효과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역할 놀이(Role Play)의 학습 잠재력

Seliger(1983)에 따르면 학습자의 개인적인 대답의 도출은 제2언어의 습득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화 중 어떤 메시지가 의사소통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때 대화 참여자는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의사소통에 흥미를 가지고 이에 반응할 것이다. 교실 상황의 의사소통은 교사가 한 번에 전체 학생들과 소통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행위패턴은 일대다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의 질문 또는 의사소통 행위는 학생들의 한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닫힌 질문이다. 이는 교실 밖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대 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역할 놀이 상호작용은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낸다. 두 사람 간의 면대면 소통을 통해 학습자가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서 자연스런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한다.

역할 놀이는 학습자의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길러주며 제2언어 지식을 자동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학습자가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입력들로부터 새로운 제2언어 지식들을 선택하여 습득하게 한다.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의 형태보다는 의미와 구조에 집중하므로 성공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언어를 직접 실험, 협상과 수정, 산출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인다. Seliger(1983)에 따르면 교실과 교실 밖 상황에서 제2언어를 사용하여 활발하게 상호작용한 학습자는 교실 안에서만 드물게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즉,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에 더 자주 참여할수록 목표 언어의 가설을 검증하고, 잘못된 가설을 거부하는 기회를 빈번하게 가지며 새로운 언어 지식을 더 잘 습득할 수 있다. 역할 놀이는 실제와 비슷한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역할 놀이 안에서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접근하도록 한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들을 더듬거리며 말하고, 휴지를 가지거나 잘못된 대화의 시작을 하는 등의 언어 사용의 실험 과정(experimentation)은 언어의 습득을 촉진한다. 교실의 의사소통은 교사가 주로 대화를 장악하므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를 실수하여 발화하거나 이를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부

족하다. 역할 놀이는 학습자가 언어 습득의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실수를 실험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준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학습자는 본인 스스로의 언어를 사용하고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더 많은 언어의 입력에 노출시키며 교실의 교수방식보다 활발한 의미 협상을 촉진한다. 의사소통의 의미 협상은 두 화자가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자가 언어 입력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발화자는 의미 협상을 통해 이를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바꾸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끌 수 있다. 역할 놀이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들을 수정하는 의미 협상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Ellis(1985)에 따르면 학습자는 완전한 문법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언어 자원을 활용한 언어 출력(pushed output)을 해야한다. 역할 놀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참여를 높이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적 출력을 높일 수 있다. Ellis의 출력 가설은 학습자의 출력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며 학습자가 발화를 출력하면서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화 기술을 발달한다고 설명한다.

학습자가 짝을 짓거나 소그룹으로 역할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의 발화를 실험, 수정해 볼 수 있으며 절차적 지식을 증진하는 의사소통 연습을 할 수 있어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

(2) 역할 놀이(Role Play)의 담화 잠재력

학생이 교사 주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제한된 교실 상호작용과 달리, 역할 놀이 방법은 학습자가 대화 주고받기, 전략적인 언어 장치의 사용 등과 같은 담화 능력을 연습하도록 한다.

역할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대화 차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침묵으로 자신의 발화 차례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역할 놀이 상황에서 학습자는 여러 변수가 생기는 대화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연습함으로써 실제 상황의 담화적인 문제를 다루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의 발화 수행은 다양한 언어와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전략을 실행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역할 놀이는 학습자에게 예측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대화 참여자의 기대치 못한 말화에 반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역할 놀이(Role Play)의 사회언어학의 잠재력

역할 놀이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인 화용언어학적 행위(pragmalinguistic behavior)와 사회화용적 행위(sociopragmatic behavior)를 향상시킨다.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 역할 놀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시, 표현, 양보, 논쟁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행위를 만들고 역할 설명에서 제시된 배경 정보에서 도출되는 요청, 불만, 사과의 의도된 의사소통 행위들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언어학적 의사소통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 실제 상황의 역할 관계가 형성되고 상호작용 양식은 사회적 요소에 맞게 조절될 수 있다. 학생은 역할 관계가 각각의 상황, 의사소통 기능, 대화 참여자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예측할 수 있다.

학교 교실 상호작용은 교사가 의사소통을 주로 이끌어가므로 교사와 학생 간 비대칭적인 역할 관계를 형성한다. 교실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과정을 의사소통 전달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교육적인 이데올로기를 수반한다. 역할 놀이는 이러한 교실 의사소통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준다.

역할 놀이 연습활동은 실제 삶 상황에 기반을 두므로 연습에서 쓰이는 담화내용이 진짜 담화와 연관이 있다. 학습자들은 교실 밖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써야하는 언어종류를 연습해야 한다. 학생들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 세상을 실연해야 한다.

역할 놀이를 하면서 학습자는 그들의 역할, 위치와 관련한 다양한 범위의 언어 기능들을 연습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를 구조화하고 유지할 책임을 갖는다.

역할 놀이를 활용하는 것은 원어민이 실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구조를 사용하게 하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다. 학습자는 역할 놀이를 통해 제한적인 언어 수단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전략들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질은 학습 잠재력과 다양한 사회화용론적 측면의 습득과 연관이 있다.

(4) 실제 교실 학습 속 역할 놀이(Role Play)

역할 놀이는 일대 일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이끌고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발화하면서 자신의 영어 말하기를 확인, 점검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역량 증진을 돕는 교수방법이다(박지영, 2006). 교사는 학습자 개개인의 언어 숙달도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이 실제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역할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화행 수업 목표에 근거한 충분한 화행의 의미를 학습 완료 후에 모델링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 때 모델링에는 다양한 요청 유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화행 학습을 위한 역할 놀이는 학습자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하고 의사소통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동기를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놀이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교사는 역할 놀이에 필요한 만큼의 학급 학생들을 선택한 후, 사전에 준비한 상황의 대화를 학생들 앞에서 실연해 보인다. 이 때 교사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한 번만 시연한다. 그리고 교사는 역할 놀이 상황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지어 각각의 특정 역할과 상황, 성격 특성을 카드를 통해 제시한다. 그룹 단위로 앉아있는 학생들은 대화의 상황, 역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주어진 상황에 맞는 화행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교사는 그룹 주변을 돌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살피고 격려한다. 수업 마무리에 몇 개의 그룹이 재구성한 담화를 학급 전체가 공유하고 교사가 이에 피드백을 주며 마무리한다. 특히 교사는 요청화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학습자 스스로가 화행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여 발화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역할 놀이의 상황과 주제는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제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화행 능력 함양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5종의 영어 교과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다음 <표16>과 같이 요청화행이 포함된 역할 놀이의 상황을 제언할 수 있다.

<표16>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따른 역할 놀이의 상황

교과서	역할놀이 상황
영어 I 실용영어	<p>학생: 내일까지 영어숙제를 제출해야하는데 완성하지 못하였다. 교무실에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다.</p> <p>교사: 학생의 사정을 듣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p> <p>두 대의 자동차 사고현장에 연루된 운전자, 목격자, 경찰 역할을 제시한다. 특정 상황과 인물들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협업하여 즉흥적인 언어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p>
진로영어	<p>A: 친구에게 자신의 진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조언을 요청한다.</p> <p>B: 친구의 진로 문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조언을 제공한다.</p>
관광영어	<p>A: 호텔 도어맨에게 자신의 가방을 운반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주차장의 위치를 묻는다.</p> <p>B: 호텔 고객의 가방을 운반할 것을 수락하고 주차장의 위치를 정중하게 알려준다.</p>
비즈니스 영어	<p>회사A: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상품 목록, 견적서 또는 가격표 등의 발송을 요구한다.</p> <p>회사B: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물품을 선정하여 구매 조회에 대한 답신을 작성한다.</p>

영어 I 과 실용영어 교과서는 실제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교사에게 숙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요청상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상황을 제시하여 요청화행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영어는 학습자가 진로를 탐색, 선택하고 진로 계획을 설계할 학습목표를 하고 있으므로 멘토에게 진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을 역할 놀이의 소재로 제공하였다. 관광영어 과목은 관광 종사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학습 내용이므로 호텔에서 흔히 사용하는 요청 상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영어는 회사 간 통신문 작성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영어표현을 학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회사 간 협상 거래를 위한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수락하는 쓰기 중심의 요청화행 사용하기를 역할 놀이의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특성화고의 영어를 담당하는 교사는 각 교과가 지향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요청화행이 포함된 역할 놀이의 상황을 제공하는 역량이 필요하겠다.

5.2.3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평가

과거 객관주의 관점의 전통적 평가는 표면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측정에는 용이하나 창의력, 문제해결력, 고등정신능력을 기르는 데에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시대의 화행 연구 또한 정형화된 요청 표현들을 주로 화행의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식은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며 학습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고 역설하는 구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화행 연구에서 Trosborg를 선두로 하여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범주의 표현들이 요청 화행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과 학습자 개인의 목표 달성 정도를 중요시하는 수행평가 도입을 촉진하였다. 세계적인 지식관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1996년부터 부분적으로 수행평가를 도입하였다(유인경, 202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표현 기술 영역에서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수행평가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립하는데 애쓰고 있다(교육부, 2015).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말하기 수행평가의 목적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의의를 둔다(교육부, 2015). 즉,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는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평가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평가는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영어를 매개로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문제해결능력,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Hughes, 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평가 방식에는 관찰법, 자기평가, 동료평가가 있다. 관찰법은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체크리스트, 녹화, 녹음 등의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관찰, 분석하는 평가다. 또한 과제 수행 과정에 있어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평가하거나 친구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방법인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수행평가의 평가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

요청 유형은 실제 대화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행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평가 방식은 학생이 화행 사용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자발적으로 반성적 성찰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이은경, 2011).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교사평가와 비교하여 화행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할 수 있다. 특히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는

학습자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학습자가 보다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고 편안한 상황에서의 화행 습득을 지향하는 평가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1) 동료평가

동료평가는 대안적 평가 중 하나로서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동료평가는 일반적인 교사 위주의 평가보다 교사 단독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높여주어 평가의 교육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교사는 동료 평가 시행 전에 평가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평가항목과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논의에 참여시켜 학습자가 동료 평가를 통해 언어 학습의 목표를 잘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를 발화할 때의 주의사항, 오류의 유형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언어숙련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이완기, 2007).

동료평가를 통해 다른 학습자의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화행 표현, 오류 유형들에 주목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자신의 발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동료평가는 학습자가 서로의 말하기 연습 짝이면서 상대의 평가자의 역할을 부여하므로 자신의 잘못된 화행 사용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동료의 화행 발화와 비교, 검토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 발달을 도와준다.

O'Malley와 Pierce(1996)에 근거하여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동료평가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동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가를 실시하므로 자연스러운 요청화행 발화 행위에 관한 관찰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둘째, 교사주도의 평가보다 동료평가는 피평가자의 평가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므로 일상적 생활에서 요청화행 발화 행동이 평가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약하다. 셋째, 동료평가는 여러 동료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모은 것으로 평가 신뢰도가 높으며 특정 평가자 주도의 평가와 다른 장점들이 있으므로 타당성이 높다. 요청화행 발화 수행 대상자들이 동료평가를 통해 평가의 대상인 과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판단한다면 요청화행 수행을 가장 유용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 말하기 활동 시에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가 동료의 화행 발화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림5>와 같이 동료평가 학습지를 제공할 수 있다.

Peer Evaluation Rubric

Total Score: _____ /50

평가 항목	채점 기준	점수	
과제완성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함	10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거의 완벽하게 이행하였으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음	8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미흡함	6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이행하지 않음	2	
유창성	발표 시 말의 끊김이 거의 없이 매끄럽게 내용을 전달함	10	
	발표 시 말의 끊김이 가끔 있으나 비교적 매끄럽게 내용을 전달함	8	
	발표 시 말의 끊김이 심하여 내용 전달에 지장을 줌	6	
	발표 이어짐이 전혀 안됨	2	
발음과 억양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거의 없고 자연스러움	10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가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	8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심하여 부자연스러움	6	
	발음, 강세, 억양이 전혀 구분이 안 됨	2	
전달력	태도	발표 시 태도가 적절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음	5
		발표 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발표 내용 전달에 지장을 줌	3
		발표 시 매우 산만함	1
	눈 맞춤	청중과의 지속적인 눈 맞춤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함	5
		청중과 눈 맞춤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함이 있음	3
		청중과 전혀 눈 맞춤을 하지 않아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미흡함	1
	자신감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됨	5
		목소리의 크기가 다소 작아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3
		목소리가 크기가 너무 작아 발표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됨	1
	비언어적 표현	제스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됨	5
		제스처 사용이 미흡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3
		제스처 사용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1

※ Comments

배울 점	아쉬운 점 / 피드백

<그림5> 동료평가 학습지

<그림5>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요청 화행이 포함된 발화를 해야 하는 말하기 평가를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료평가 학습지이다. 교사는 동료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평가 항목과 채점 기준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평가목적과 평가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평가 항목은 과제완성, 유창성, 발음과 억양, 전달력(태도, 눈 맞춤, 자신감, 비언어적 표현)을 토대로 전체 말하기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전반적인 말하기 활동을 점수화하는 평가 기준표와 더불어 친구의 말하기 활동에서 배울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피드백에 관한 코멘트 빈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요청 화행 발화 말하기의 동기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동료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자의 말하기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화행 표현과 의미를 비교하여 스스로를 이해하고 오류 수정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화행 사용 경험을 동료 학습자에게 피드백하는데 사용하면서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주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동료의 요청화행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이끌 수 있다.

(2) 자기평가

자기평가는 학습자 중심의 평가방법 중 하나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학습전략을 선택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돕는 평가방식이다. Harris(1997)는 자기평가를 통해 학습자는 평가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성취를 진단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기 위해 자기평가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확인하면서 독자적인 학습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Dickinson(1987)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학습자를 훈련시켜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독립적으로 익히기 위해서 자기평가를 훈련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Jeon(1998)를 토대로 요청화행 교수를 위한 자기평가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자기평가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적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기대,

필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신의 화행 교수방법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며 학습자는 학습자 주도적으로 화행 경험을 정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기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조절하도록 한다. 학습자는 현재 할 수 있는 요청화행 발화 수준과 앞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수행 영역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평가는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여 자율학습을 하게 한다. 학습자는 현재 화행 발화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여 자신의 수행 준거를 설정할 수 있다. 넷째, 자기평가는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갖는다. 학습자가 현재 할 수 있는 요청화행과 부족한 부분에 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학습자의 화행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높일 수 있다.

이완기(2007)는 동료평가와 자기평가가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아닌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교사는 동료평가와 자기평가 실시 전에 해당 평가들의 의의와 평가 요소들을 학습자에게 반복적이고 철저하게 교육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동료평가와 자기평가의 취지와 장점을 알고 평가기준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받는다면 학습자의 말하기 활동 전반의 반성적 성찰을 돕는 학습자 주도의 평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완기(2007)가 언급한 평가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 역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말하기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화행 발화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림6>과 같은 자기평가 학습지를 제공할 수 있다.

Self Evaluation Rubric

Total Score: _____ /50

평가 항목	채점기준	점수	친구들 점수 (평균)	
과제완성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수행함	10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거의 완벽하게 이행하였으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음	8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이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미흡함	6		
	주어진 요청사항 발화를 이행하지 않음	2		
유창성	발표 시 말의 끊김이 거의 없이 매끄럽게 내용을 전달함	10		
	발표 시 말의 끊김이 가끔 있으나 비교적 매끄럽게 내용을 전달함	8		
	발표 시 말의 끊김이 심하여 내용 전달에 지장을 줌	6		
	발표 이어짐이 전혀 안됨	2		
발음과 억양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거의 없고 자연스러움	10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가끔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	8		
	발음, 강세, 억양에 실수가 심하여 부자연스러움	6		
	발음, 강세, 억양이 전혀 구분이 안 됨	2		
전달력	태도	발표 시 태도가 적절하여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지장이 없음	5	
		발표 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발표 내용 전달에 지장을 줌	3	
		발표 시 매우 산만함	1	
	눈 맞춤	청중과의 지속적인 눈 맞춤을 통해 효과적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함	5	
		청중과 눈 맞춤을 통해 발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함이 있음	3	
		청중과 전혀 눈 맞춤을 하지 않아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데 미흡함	1	
	자신감	목소리의 크기가 적절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됨	5	
		목소리의 크기가 다소 작아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3	
		목소리가 크기가 너무 작아 발표 내용 전달이 전혀 안 됨	1	
	비언어적 표현	제스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됨	5	
		제스처 사용이 미흡하여 발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음	3	
		제스처 사용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1	

※ Self-reflection

1. 잘한 점	
2. 개선하고 싶은 점	
3.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림6> 자기평가 학습지

교사는 <그림5>의 동료평가와 연계하여 <그림6>의 자기평가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5>의 동료평가에서 확인한 ‘친구들의 점수평균’을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는 스스로의 말하기 활동 평가 결과와 타인의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자신의 화행 발화를 비롯한 말하기 활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 스스로의 말하기 활동의 잘한 점, 아쉬운 점을 성찰하여 적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자율적으로 찾아보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말하기 활동 전반의 반성적 성찰을 이끌 수 있다.

Brown과 Hudson(1998)에 따르면, 자기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책임감과 통제력을 길러준다. 자기평가는 학습자 스스로 현재 부족한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인지하고 학습자 스스로 알맞은 학습전략 선택하여 다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자율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교사가 철저히 준비된 자기평가 학습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한다면, 학습자의 요청화행 학습의 내재적 동기를 촉진될 것이며 학습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을 자율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서술한다. 먼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다음으로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의 의의 및 교육적 시사점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한다.

6.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여 요청화행 유형을 분류하고 각 교과서의 화행 유형을 Trosborg(1995)의 원어민 화행 유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실제 원어민의 화행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화행 교수의 목적이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 증진에 있으므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요청화행 교수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 제시되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에 수록된 요청화행 발화는 Trosborg가 제시한 요청 화행 유형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영어권 원어민의 요청 화행 사용과 비교하여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각 5종)에 사용되고 있는 요청 화행의 유형을 살펴본다면 해당 교과서는 EFL 학습 교과서로 효용성이 적절한가?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가 EFL 학습 자료로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 함양 화행적 능력 습득을 위한 화행 교수 방안들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 5종의 전체 대화지문에서 요청화행 빈도는 관광영어(152개), 진로영어(72개), 영어 I (70개), 비즈

니스영어(64개), 실용영어(39개)의 순서로 드러났다. 관광영어가 차별적으로 많은 요청표현을 제공하였으며 비즈니스 영어는 교과서 통신문 작성의 대부분에서 요청화행이 등장하였다. 이는 특성화고 취업을 위한 전문교과 영어 교과서가 상당한 요청화행 문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종의 교과서 전체 담화 지문에서 요청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47%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과서 내에 요청화행을 학습하기에 충분히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청화행 유형별 분류는 Trosborg가 제시하는 8개의 요청화행 유형을 대부분 제시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실제 영미문화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요청화행은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44.8%)와 Strategy 1. Hints(22.8%) 유형이었으며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 교과서들 또한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27.96%), Strategy 8. Imperatives(21.41%), Strategy 1. Hints(16.88%)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Strategy 6. Obligations와 Strategy 7. Performatives 유형은 5% 미만의 낮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화고 영어 교과서가 실제 원어민의 요청화행 사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의 결과, 특성화고에서만 배우는 전문 교과인 관광영어와 비즈니스 영어 교과서가 원어민의 전체 요청화행 유형들 중 70%를 차지하는 Strategy 2. Ability/Willingness/Permission와 Strategy 1. Hints 유형의 영어 표현을 전 요청화행의 50%이상의 비율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제 원어민의 요청화행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교육목적인 취업과 연계한 영어 교과서가 간접적이고 청자 중심의 요청화행을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한 영어권 취업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요청을 구사하고 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요청화행과 같은 화행학습이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의 화용적 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연구대상인 5종의 교과서 말하기 활동에는 기계적 학습 활동과 유의미 학습활동이 섞여 있는데 학습자가 스스로 실제 생

활에서 주제를 찾고 다양한 화행 유형들을 사용하여 짝과 연습하는 활동이 주어진 영어표현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전 교재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서 부족한 의미 연습 활동을 추가하고 다양한 요청화행 유형을 제공하는 보충 자료들을 준비한다면, 학생들의 말하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바람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이 편안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화행 발화의 유창성과 정확성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요청화행학습에 대한 내재적 학습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역할 놀이는 제한적인 교실 공간을 벗어나 교실 밖의 실제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습자가 일대 일로 충분한 연습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화행적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일상생활 상황과 역할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여 짝 또는 그룹멤버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 수행평가인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는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영어를 매개로 하여 요청화행 수행 과정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함으로써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가 요청화행 수행평가를 동료 및 자기 평가로 할 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결과를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고등학교 5종의 영어교과서의 요청화행을 분석하여 요청화행 유형을 분류하여 조사하고 각 교과서의 화행 유형을 Trosborg(1995)의 원어민 화행 유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 영어교과서가 실제 원어민의 화행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역량 증진을 돕는 다양한 교수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성화고 5종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5종’의 영어 교과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국내 전체 영어 교과서를 대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영어 교과서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교과서 5종을 Trosborg(1995)의 요청화행 분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기에 이를 실제 영미 문화권 요청화행의 표본과 분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Trosborg의 분류 기준 뿐만 아니라 실제 원어민의 화행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는 표본이 큰 집단에 관한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방안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분류에 근거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객관화하고 구체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화용적 능력 향상에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영어 교육과정은 개정을 이어가면서 의사소통역량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영어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일어나는 즉흥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담화자의 화용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화용적 능력 발달을 높이기 위해 화행이 담긴 다양한 예문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영어 교육 목적 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행 교수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수행평가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영어과개정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할까요?: 중등(OMR 2017-19-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세영. (2014). *고등학교 영어1 교과서의 요청화행 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2014).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화행 수행 발화 분석*.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6).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요청화행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인경. (2021).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과 요구 탐색*.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영. (2014). *특성화고등학교 직업영어 교재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기. (2007). *영어 평가 방법론*. (주)문진미디어.
- 이은경. (2011). *역할놀이 기반 초등영어 말하기평가 모형 개발 및 적용: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 (1990). *話行論과 外國語教育*.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민. (2012).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대화문의 요청화행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Massachusetts: Harvard UP.
- Bachman, L.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P.
- Blum-Kulka, S. (1987). Indirectness and politeness in request: sam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 131-146.
-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 Requests and apologi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Blum-Kulka, S., & Kasper, G. (1993). *Interlanguage Pragmatics*. New York: Oxford UP.
- Brown, J. D., & Hudson, T. (1998). Alternatives in language assessment. *TESOL Quarterly*, 32, 653-675.
- Brown, P., & Levinson, M.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 Brumfit, C. J.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P.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P.
- Enright, D., & McCloskey, M. (1985), Yes, Talking!: Organizing the Classroom to Promot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9, 431-453.
- Gazdar, G. (1981). Speech act assignment. In A.K. Joshi, B. W. and Sag I., editors, *Elements of Discourse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P.
- Gibbs, R. W. (1986). What makes some indirect speech acts conventional?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25, 181-196.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ole, P. & Morgan, L.(Eds.), *Syntax and semantics*, 3, 41-58.
- Harris, M. (1997). Self-assessment of language learning in formal settings. *ELT Journal*, 51(1), 12-14.
- Hughes, A.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2nd ed.). Cambridge: Cambridge UP.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Pride and J. Holmes(Eds) in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 Harmondsworth: Penguin: 269-293.
- Iwai, Y. (2011). The Effect of 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Pedagogical

- Implications for EFL/ESL Teachers. *The Reading Matrix*, 11(2).
- Jeon, J-H. (1998). Performance Assessment: Use of self-assessment (SA) for the communicative college English program. *English Teaching*, 53(3), 179-197.
- Lakoff, R. (1972). Language in Context. *Language*, 48(4), 907-927.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P.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P.
- Long, M. H., & Porter, P. A. (1985). Group Work, Interlanguage Talk,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9, 207-228.
- O'Mally, J. M. & L. V. Pierce. (1996). *Authentic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Reading, MA: Addison-Wesley.
- Prabhu, N. (1987). *Second Language Pedagogy*. Oxford: Oxford UP.
- Sadock, J. (2006). Speech acts. In L. Horn & G. Ward(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53-73.
-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P.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P.
- Seliger, H. (1983). Learner interaction in the classroom and its effect on language acquisition. *Classroom-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246-267.
-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Trosborg, A., & McVeigh, J. (1998). *Rules and Roles*. Herning: Systime.
- Vellenga, H. (2004). Learning pragmatics from ESL and EFL textbooks: How Likely?, *Tesl-EJ*, 8, 1-22.
- Wierzbicka, A. (1987). *English Speech Act Verbs: A Semantic Dictionary*. London: Oxford UP.

조유현 외 4인. (2018). High School Business English. 경기: (주)이오북스
이창수 외 2인. (2017). High School Tourism English. 제주: (주)이젠미디어
박준언 외 7인. (2018). High School English. 서울: (주)와이비엠
박준언 외 3인. (2019). High School Career English. 서울: (주)와이비엠
박준언 외 3인. (2018). High School Practical English. 서울: (주)와이비엠

<ABSTRACT>

A Study on the Speech Act of Requests
in Vocational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oon, Jin A

English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investigate the usage and frequency of requests in five different English textbooks. In order to examine the authenticity and effectiveness of English textbooks, speech acts of requests are compared by the criteria of Trosborg's study(1955). Also, the characteristics of five different English textbooks are revealed by comparing the types of speech acts of requests in each textbook. Lastly, this study describes the most effective speech acts of requests teaching methods to improve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Under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mainly aims at develop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One of the main asp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s pragmatic competence, which influences the ability of successful communication. However, Korean learners in EFL circumstances have few chances of being exposed to pragmatic English usag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22.

In this way, English textbook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learning channels to promote students' pragmatic competence. Therefore, English textbooks should be improved to become more authentic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usage and frequency of requests in English textbooks are similar to those in Trosborg's findings. More indirect requests are shown than direct requests in English textbooks and Trosborg's research. It means that English textbooks better reflect the usage of requests in English culture. In contrast, some types of direct requests, such as imperatives, are frequently shown in Korean textbooks than those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In addition, five different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how different usage ranks of speech acts of requests based on each textbooks' objectives. It is suggested that according to each textbook's aim, English textbooks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eet the appropriateness of the speech act of requests.

Upon these findings, teachers must understand the lack of actual usage of speech acts of requests in Korean textbooks and offer more authentic speech acts. Therefore, it suggests the way to develop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by complementing activities in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English textbook and the evaluation methods of performing speech acts . This will enable students to improve their authentic pragmatic competence in EFL circumstances.